

#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과 교육에 대한 시론\*

## Preliminary Study on Contents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Korean Family Living Culture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수 정영금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Young Keum Je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가정생활문화 교육의 방향과 내용 |
| II. 가정생활의 변화              | V. 결론                 |
| III. 가정생활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의 현황 | 참고문헌                  |

### <Abstract>

Interest in family living culture is decreasing in Korea, compared to interest in culture technology and culture industry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Although expenditure on cultural activities is generally increasing, activities that are most preferred are concentrated on personal leisure or public performances. This study takes an in-depth look at the underlying issues related to family living culture in order to highlight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to productive family life. For this purpose, the dynamics of past and current family living culture in Korea are analyz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le of education. Trial family living culture program are suggested based on overall findings.

**주제어(Key Words)** : 가정생활문화(family living culture), 가정생활문화콘텐츠(contents for family living culture),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program for family living culture), 전통가정생활문화(traditional family living culture)

**Corresponding Author** : Young Keum Jeong,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eokgok2-dong, Wonmi-gu, Bucheon, G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308 Fax: +82-2-2164-4301 E-mail: jeongyk@catholic.ac.kr

\* 본 연구는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서론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보산업을 넘어 문화산업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와 문화를 결합한 창조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산업발전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의 정보화를 넘어 개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관한 시간과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노동시간의 감소,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활동, 문화산업, 문화복지 등을 활성화하면서 문화선진국과 문화국민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제외된 것은 매일 매일의 삶에 녹아있는 가정생활문화 혹은 일상생활문화에 대한 발전과 관심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 미술 등의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하거나 영화나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개인의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가정단위나 마을 단위의 생활문화나 놀이문화를 유지 혹은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물론 과거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문화생활빈도가 늘어나면서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문화향유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거나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소비사회에서 예술활동이나 대중문화가 소비상품화하면서 가속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가정은 문화산업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할 뿐 가정의 문화나 공동체의 문화를 생산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화산업이나 창조산업의 발달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상품으로서의 문화활동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생활문화, 혹은 가정생활 속에서 발전하고 이어져가는 가정생활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가정과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정생활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문화를 형성, 전달하며, 그것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교과안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생활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나타난 현실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한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학문적, 실질적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관련주제에 관한 연구들과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한다. 또한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도적 연구이므로 본 주제에 관한 필요성이나 방향을 중심으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을 주로 논의하겠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관련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가정생활의 변화

### 1. 소비사회로의 변화

다비트 보스하르트는 소비의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세기의 역사는 소비의 역사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한 복지의 역사이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살게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향후 10여년 간은 소비주의의 순수한 형태가 대두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소비함에 있어 더 이상 어떤 제도장치도, 금기도 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소비사회의 산물들이 평범한 시민의 안방으로 대규모로 파고들고 확산됨으로써 우리 사회도 급속도로 민주화되었으며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발전은 열등한 상품과 열등한 소비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상품개발과 소비의 가속화는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와서 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페이스북콘도 우리는 ‘소비자 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품은 우리의 문화를 포함하여 서구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호체계가 되었다.

소비사회로의 변화는 1880년부터 1980년 사이의 미국의 소비사회로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시기는 1920년대로서, 이 시기에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구조 속에서 소비사회로 진입하였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사회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절약과 생산의 가치를 여가와 소비의 가치로 바꾸어놓았다. 상품의 기하학적인 증대와 끊임없는 개선이 일반화되었으며 새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가치를 축적하기 보다는 빨리 소비하고 가치를 소진시키면서 과시적인 소비가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20년대에 백화점이 생기면서 도시적 생활과 물질의 향유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중요한 소비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TV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광고가 소비를 진작시키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의 소득수준향상과 함께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81년에 컬러 TV가 방영되었으며 올림픽 개최, WTO체제로의 편입 등으로 시장이 개방되었다. 또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의 발달, 유통시설의 지방화와 대형화 등이 결합하면서 현재와 같은 소비중심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지난 10년간(1995-2005) 연평균 5.3% 증가하여 2005년에는 2,533,100이었다. 이는 1995년 대비 58.8%가 증가한 것이고 2000년 대비 25.7% 증가한 수치이다. 1998년에 IMF 외환위기로 연증가율이 -12.0%로 최저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1999년에 다시 회복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대비 2005년 가계지출 증가율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통신이 130.0%, 광열/수도가 101.1%, 교육이 82.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2008년도 4분기 경제성장률이 -3.4%로 급감한 것과 동시에 소비도 -4.4% 감소하여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의식주 관련 필수 소비재보다 내구재와 사치재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다(강중구, 2009).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2009. 1. 28. 파이낸셜뉴스)에 의하면 최근 불황으로 인해 20대는 덜 먹고, 30대는 덜 놀고, 40대는 덜 입는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는 외식비, 30대는 문화레저비, 40대는 의복구입비를 우선 줄이고 있었다. 반면 자녀과외비, 경조사비는 크게 줄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생활시간의 변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 근무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공기업과 금융, 보험 및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후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63년 주 40시간노동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여 1999년에 이르러 전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었다. 프랑스는 1936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여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그 이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점점 줄어 2000년부터는 주 35시간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역시

1945년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정착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연방공무원과 주정부 공무원들의 순으로 5일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문숙재 외, 2005).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여가시간의 증대는 근로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여가시간이나 교육 기회 등을 증가시켜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지식인, 문화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준다. 또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가족과의 시간을 증가키며 줌으로써 생활에 균형과 여유를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2002)에 의하면,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서 삶의 질 향상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 관련 산업의 발전,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즉 사무직은 삶의 질 향상이 42.4%이고 여가 관련 산업의 발전이 22.1%로 조사되는데 비해서 생산직은 여가 관련 산업의 발전이 33.1%로 조사되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효과는 윤소영(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제도가 가정에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남편의 74.7%, 아내의 76.4%는 부부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3. 여가시간의 증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여가시간일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우리가 노동과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가에 대한 개념까지도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일하기 위해 노동력을 충전하는 여가였다면 이제는 여가 자체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즉 단순히 집에서 쉬는 소극적인 여가가 아니라 여가를 즐기고 여가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여가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생활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여가를 한 축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문화도 변화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생활은 직장 중심의 일하는 사회에서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여유로운 사회로 변화하게 되며 일 중심의 문화에서 일과 여가 혹은 일과 가정생활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을 보면, 2003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50대 연령층의 증가율이 3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9세 이하 연령층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2007)

〈표 1〉 가구주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교양오락 소비지출

(단위 : 원, %)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연도					
2003	90,965	99,612	92,953	87,924	58,367
2004	98,411	105,424	98,489	91,945	60,426
2005	93,836	109,092	105,468	99,672	63,099
2006	94,122	108,524	108,952	107,929	60,508
2007	121,459	122,012	110,496	119,285	66,157
증감률 (03/07)	33.5	22.5	18.9	35.7	13.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 결과 우리나라의 2006년 여가산업규모는 약 71조원을 상회하여 2005년 여가산업규모인 63조원보다 12.2% 증가한 수치로서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가와 관련된 기타 산업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문화산업 약 57조, 레저산업 약 31조, 스포츠산업 약 22조 등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가콘텐츠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시장의 규모는 2007년 국내 매출액 2조 2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케이블TV의 증가율 역시 급증하고 있다(여가백서 2008)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보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으로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2007년 평일 2.8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3.5시간과 3.9시간으로 90년대에 비하여 줄지 않고 있다. 또 기타 텔레비전 시청을 제외한 평균 여가시간은 1999년에 평일 0.26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표 2〉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제외한 평균 여가시간

(단위 : 시, 분)

연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주간 평균
1981*	0.32	0.42	1.04	4.26
1983*	0.25	0.37	1.02	3.44
1985*	0.27	0.38	0.53	3.46
1987*	0.30	0.39	1.05	4.14
1990*	0.29	0.38	0.52	3.55
1995*	0.26	0.43	1.06	3.59
1999**	0.26	0.31	0.37	3.18

자료 :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1982『국민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2000.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출처 : 최석호, 2008.

0.31시간, 0.37시간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여가활동의 유형에서도 2004년의 조사결과 텔레비전시청이 56.7%, 휴식과 수면이 50.7%를 차지하는데 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24.7%에 머물렀다(최석호, 2008).

또한 2007 국민여가조사에 의하면 가족 및 친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30-40대에 비해 10-20대는 적게 나타났다.(통계청, 국민여가조사 등의 결과를 최석호,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생활이 연령과 상관없이 TV시청과 같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젊은 층의 경우에 가족과의 시간이 적음을 보여준다.

〈표 3〉 주로 하는 여가활동

(단위 : %)

연도	감상 관람	텔레 비전	컴퓨터	승부 놀이	창작적 취미	스포츠	여행	사고	가족과 함께	가사 잡일	휴식 수면	기타
1981*	38.1	-	-	5.7	8.3	3.8	-	-	-	-	39.1	4.2
1984*	29.1	-	-	6.1	5.1	11.1	-	-	44.4	4.2		
1990*	5.3	24.5	-	5.7	5.8	12.3	-	-	44.0	2.4		
1993**	4.9	24.4	-	4.0	3.7	14.0	-	-	45.4	3.5		
1996***	8.0	41.2	-	3.4	3.2	4.0	7.4	-	-	29.5	3.3	
2000***	10.1	62.7	12.5	3.4	3.2	8.0	15.1	32.3	22.8	33.5	50.7	3.7
2004***	10.7	56.7	18.9	-	3.1	9.0	12.4	30.0	24.7	32.9	50.7	2.9
2007***	6.5	52.9	16.1	-	-	9.0	10.8	25.6	-	30.2	45.1	-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청, 199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1994.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1997 『사회통계조사보고서-정보와 통신문화와 여가교육부문』

출처: 최석호, 2008

〈표 4〉 주 5일제 수업 이후 청소년의 여가활동

(단위 : %)

2006년						
없다	있다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가활동				
61.5	38.5	TV시청(29.5)	외식(17.3)	쇼핑(13.9)	산책(11.6)	목욕(11.6)
없다	있다	부모님과 함께하길 희망하는 여가활동				
51.9	48.1	국내여행(23.1)	영화(19.4)	쇼핑(9.7)	해외여행(8.8)	찜질방, 외식, 수영(7.9)
2007년						
없다	있다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가활동				
57.5	42.5	TV시청(28.9)	외식(23.4)	영화보기(17.4)	등산(16.9)	목욕(14.9)
없다	있다	부모님과 함께하길 희망하는 여가활동				
49.0	51.0	영화(17.0)	국내여행(15.8)	등산(14.1)	해외(12.9)	외식(9.5)
2008년						
없다	있다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가활동				
68.1	31.9	TV시청(24.1)	영화보기(19.7)	배드민턴(13.9)	외식(13.1)	산책(13.1)
없다	있다	부모님과 함께하길 희망하는 여가활동				
54.5	45.5	국내여행(31.8)	영화(12.8)	운동(12.3)	놀이공원(8.2)	쇼핑(8.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실태를 보면,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새로운 여가활동을 시작한 비율이 2006년에서 2008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2006년에 38.5%였던 비율이 2007년에 42.5%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 31.9%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나마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TV시청 24.1%, 영화보기 19.7%, 배드민턴 13.9%, 외식 및 산책이 각각 13.1%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4. 시간절약상품의 요구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며 투잡이나 멀티잡이 등장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생활은 더욱 복잡해진다. 시간이 돈이 되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직장일이나 가정일, 개인적인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간단한 심부름부터 청소, 이사, 식사, 차례상차리기 등 가정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어린이 도서방문 대여업체가 생겨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학원도 보내고 간식도 마련해준다. 가정용품의 진화는 더 화려하여 가전제품들은 더욱 더 빨리 완성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시단가전'이라고 하여 시간을 단축

하는 가전제품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쌀도 씻을 필요가 없이 씻어 나온 쌀이 시판되고 있다. 더더욱 좋은 것은 이런 모든 제품들을 시간을 들여 돌아다니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의 변화는 주로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핵가족화에 의한 가구수 증가는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대규모 소매점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높아진 구매력은 소매점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은 고급화, 다양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문화, 교육, 오락,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는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춘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과 같은 업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0년에 약 10조였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05년에 약 23조를 넘게 되어 대형할인점의 과점화현상이 심해졌다(통계청, 2006; 체인스토어협회, 2006.)

또한 가정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혹은 편리함을 위해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 결과 통신판매업 시장의 규모는 2000년 3조 2000억원에서 2005년15조 26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 쇼핑 시장의 규모는 2000년 66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산업자원부, 2006.).

### III. 가정생활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의 현황

#### 1. 학문적 측면에서의 가정생활문화 연구의 현황

학문적 측면에서의 가정생활문화 교육은 연구논문의 발표나 교재 등의 출판, 학술대회의 주제선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혹은 가정생활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학회지로서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들 선정하였다. 가정생활이란 의식주생활과 가족관계, 소비자, 가정관리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하지만 이런 모든 분야들이 각각의 전문학회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는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자원, 여가와 환경자원 등 모든 가정자원의 통합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므로 이에 포함시켰다.

우선,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2000년 이후 생활과학 관련 주요 3개 학회지에 게재된 것은 총 20건이다(가정문화, 가정생활문화, 생활문화, 의생활(의복)문화, 식생활(식품)문화, 의생활(의복)문화, 주생활(주거)문화, 소비(생활)문화 등의 키워드 검색 근거). 이 중 가정의례에 연구가 3건, 청소년 문화에 대한 연구 1건, 생활예절에 대한 연구 1건, 의생활 문화 2건, 주생활문화 7건, 소비문화 3건, 기타 주부와 일상 생활에 대한 연구 2건,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 1건이 있었다.

(표 5) 가정생활문화 관련 논문

주제	논문수	주제	논문수
의례	출산, 관혼상제 3	생활(패션)문화	2
	생활예절 1		주거문화 7
기타	일상생활 2	소비문화	3
	사업평가 1		여가문화 1
합계		20	

비교적 건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례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나 국가간 비교연구였고 의생활문화는 문양과 문화상품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가 많았다 주생활문화는 특정지역과의 주거문화비교가 대부분이었고 기타 일반적인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소비문화 역시 문화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이론적 연구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이 발표되는 논문들 사이에서 가정생활문화라는 주제는 현재 매우 도외시되어 왔으며 전체적으로 가정생활문화를 진단해보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한편 위에서 제시된 주요 3개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만 보더라도,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2000년대 초기에 3번뿐이었다(학술대회 주제 검색 근거). 대한가정학회의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세계화 시대의 생활문화', 2002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주5일제 근무제와 생활문화의 변화', 2003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양성평등사회의 생활문화'가 논의되었다. 그 후 90년대 말에 초래된 경제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복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00년대 이후의 학술대회 주제는 건강가정과 가정정책에 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6년의 '가정문화향상과 가정복지', 1998년의 '한국가정의 생활규범과 생활표준', 1999년의 '세계화 시대의 생활예절' 등의 학술대회를 통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비교해 본다면, 2000년대 초의 생활문화에 대한 주제는 세계화나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과 행동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강가정사업과 가정정책에 대한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고, 다문화사회의 도래나 경제위기상황이 또다시 거듭되면서 다시 가정생활문화에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 2. 가정생활문화 교육 및 건강가정사업의 현황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적어지는 시대적 현상은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교육은 전통적인 가정생활 중심의 가정규범이나 의례생활, 세시풍속 등에 관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정생활사라는 명칭의 교과목명하에서 한국가정생활의 구조와 주부의 역할, 아동교육, 관혼상제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목은 시대변화와 학과명칭 등의 변화와 더불어 사라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가정교육과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대학의 가정학 관련 학과는 물론 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전통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교재 편찬에서도 나타나, 현재의 생활과학 분야에서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교재나 서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1990년대에 출판된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교재를 끝으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나 교육이 사라져버렸고, 이 자리를 2000년대 전후하여 생활예절이나 지구촌 생활문화, 국제매너교육 등이 잠시 대체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통적이거나 고유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사라졌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건강가정사업이 시행되면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시작되었다. 우선, 건강가정사업 양성을 위한 교과목에 '가정과 문화'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정과 문화' 교과목은 과거의 '전통가

정생활문화'와 동일교과목으로 되어 있어 아직은 전통생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있겠지만 표준교과안의 방향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가정생활문화를 지향하고 있어 이의 활용이 주목된다.

또 한편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정과 관련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문화사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문화사업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가정문화사업의 내용은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건전한 가정의례, 가족공동체운동(공동육아, 생태운동 지원, 좋은 부모되기 운동 등),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 지원, 건강가정유성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가족단위 자원봉사 교류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가정생활문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해나가며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세대통합과 기능강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가족화합과 가족통합에 도움이 되는 가족단위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건강성을 개발하고 유지, 증진시키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하고 건전한 가정문화를 양성하고 확산시킨다. 셋째, 다양한 가족과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가정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가정문화를 선도한다. 넷째,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선도한다. 다섯째, 건강가정문화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여를 높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이 목적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사업영역별로 가족여가가 전체 프로그램의 45%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생활문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사업이 각각 약 20%씩 차지하였다. 기타 가족단위 자원봉사사업이 약 6.5를 차지하였고 가족지원사업이 3.3%를 차지하였다. 이 통계를 기초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가족여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세대통합 및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표 6〉 2005 가족문화사업 운영현황

사업영역	단위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
가족여가	가족영화제, 가족문화축제, 가족캠프, 가족파티, 가족요리, 걷기대회, 가족등반, 문화공연, 원예활동, 무노하우적답사, 박물관 나들이, 문화체험활동 등	55(45.1)
가족단위 자원봉사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등	8(6.5)
가족지원	가정봉사원 양성 및 파견, 학습도우미 양성 및 파견, 자조모임 등	4(3.3)
가정생활문화	가족의례, 생활예절, 전통문화체험, 경제교실, 문화강좌 등	24(19.8)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건강가정캠페인, 건강가정지킴이, 명절캠페인, 생활환경 캠페인, 아름다운 가족 나눔장터 등	22(18.0)
기타		9(7.4)
계		122(100)

출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a), 2006년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서(미간행)

그러나 여러 활동이 다양한 가정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의 문화사업은 단순한 문화활동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향하는 목적이 활동내용 중에 충분히 녹아들고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이거나 목적없이 사업이 수행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사업에서는 여가문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건강한 가정의례,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등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체험, 캠프, 관람 및 전시, 축제, 기념행사, 자원봉사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방법들을 활용하여 건강한 가정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 문화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비누만들기, 풍선아트, 놀이동산방문, 멀거리체험, 다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체험내용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하고 가족단위의 체험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가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검토해볼 문제이다. 또한 관람이나 전시 등의 활용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가족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즉 개개인을 대상으로 단순한 관람에 그치고 있어 가족의 강화, 가족문화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b).

이렇게 본다면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적고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교육이나 문화 확산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우리 가정의 생활문화로서 유지 혹은 전승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부족하다. 가정생활문화의 부재는 문화라는 정신적 산물의 부재 혹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서는 가정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 IV. 가정생활문화 교육의 방향과 내용

##### 1. 가정생활문화 콘텐츠 개발의 방향

가정생활문화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가정생활의 지혜와 방식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습속으로는 다른 민족, 다른 지역, 다른 가정과 우리를 구분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외래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명절이나 의례 등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 특히 전통명절은 형식보다는 그 의미와 유래가 중요할진대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이 형식만 남은 채 편리성만 추구하는 휴일로 변화되었다.

사회가 변화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바뀌기 마련이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과거의 전통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전통적인 생활문화 역시 내용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많이 변화하는 것도 있고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가 이어져 현재의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고 이것은 다시 다음 세대에겐 전통문화로 이어져간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계승해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는 여러 문화들이 특성이 없이 대중문화라는 틀속으로 스며들어 혼합되거나 포함되고 어느 한 문화가 우위를 점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인정과 수용이기보다는 흡수와 지배의 형태를 띠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문화를 만들고, 동시에 다양한 민족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서 독특한 문화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문화성장이라는 점에서 실제 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의 문화는 도외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형성하고 발

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의 방향에 대해 4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과거의 가정생활문화교육과의 차별성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는 가치관이나 노동형태, 시장구조, 시공간적인 교류 속도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생활과 크게 달라져 있으므로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를 무조건 유지, 계승할 수는 없다. 전통적인 가정생활을 토대로 현재의 우리 가정과 사회가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가정의 구조가 달라졌고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이 변화하였으며 가정에 대한 의미와 의미가 달라진 만큼 현재의 가정생활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의 의미와 행태가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하면 형태는 변화하였어도 의미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의미나 형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노동과 관련된 문화(가족역할, 세시풍속 등)는 많이 변화한데 비해서 가정의례는 비교적 남아 있는 부분이 많고, 의례 중에서도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생활방식을 따르면서 개별가정의 의미와 예식을 지켜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문화란 의, 식, 주생활과 아동 및 가족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문화의 총합이며, 우리의 가정생활문화는 한 가정, 한 가정의 생활문화의 총합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만들어가는 가정생활문화는 한 가정의 생활방식인 동시에 이것이 합하여 우리 사회의 행동양식이며 생활문화가 된다. 그런 점에서 각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형성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한국적 가정생활문화의 독자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우리의 가정 역시 경제적, 문화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손쉽게 받아들이며 세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 지나치게 서구화를 지향하다보니 전통문화에 대한 의미 축소와 소멸, 국적불명의 혼합문화, 문화정체성에 대한 혼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가정생활의 측면에서는 생활양식의 서구화가 대중 소비자사회와 맞물리면서 가정생산물의 시장대체를 가속화시켰고 가정의 의미를 축소하였으며, 그 결과 가정 고유의 문



화가 소멸되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가정생활문화 혹은 가정생활에서의 문화정체성이란 오랫동안 공유해온 의식과 예적, 경험의 산물이므로 한국인의 생활을 더욱 한국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는 가정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예술문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한국 고유의 예술이나 디자인이 다른 나라의 것들과 달라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가정생활문화와 생산물만이 우리의 독자성이 될 수 있다.

세계화시대의 생활문화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남궁진, 2002)에서도 새 패러다임에 맞는 생활문화의 전망으로서 글로벌리즘, 즉 문화의 독창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우리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물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만 머무르는 것은 문제이지만 한국인의 다양한 생활문화와 풍속들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성희의 연구(2002)에서도 역시 바람직한 세계보편적 가정생활과 더불어 특수한 가정생활문화와 상품화를 세계화시대의 가정생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3)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가정생활문화의 보편성

최근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상황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 온 이주가정들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다양한 가정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 결혼하는 부부의 10쌍 중 한 쌍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율강화나 이민자의 유입이나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결혼이민자가정의 증가로 인해 노동력 보충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유형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주었다. 즉 우리 고유의 가정생활문화를 이어가면서 현대적인 생활에 맞는 가정생활문화를 만들어나갈 뿐 아니라 전혀 새롭고도 다양한 이국적 가정생활문화와 공존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생활문화와 다양한 가정생활문화들이 모두 합쳐져서 제3의 문화를 탄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문화들이 제 색깔을 내면서 어우러져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도 요구된다. 우리의 가정생활문화가 중요한 만큼 다른 국가의 가정생활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타국의 가정생활문화가 그대로 유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4) 가정생활문화 개발과 교육의 학제간 통합성

지금까지의 가정생활문화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생활과학 중심의 가정생활문화교육이 전부였고, 그나마 학문분야의 교육을 통한 문화의 전승은 거의 맥이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가정을 제외한 사회에서는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예술이나 문화분야의 성과물을 상품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이나 디자인이 개발되고 문화와 미디어, 역사와 공학이 결합하는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결합하고 상업성을 띠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정생활의 산물인 음식이나 의복 등이 가정과는 동떨어진 순수한 예술품이나 전통식품으로 간주되어 상품화되었고, 가정과 마을에서 행해지던 세시풍속이 도시민속이나 지역문화상품으로 개발되었다. 즉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동안에 타학문분야에서 개발되거나 상업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가정생활문화의 전승은 전통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소개나 우리고유의 가치관의 장점을 심어주는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과 개발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갈 수 있는 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문화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문화원형의 발굴이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생활문화의 개발과 교육 역시 의식주문화의 통합 뿐 아니라 문화이나 역사, 예술, 미디어, 컴퓨터 공학과의 연계를 통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가정생활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가정생활문화 콘텐츠 개발의 방향에 따라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생활과학분야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학과목이 없는 실정이다. 가정생활교육론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가정과 문화를 중심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전통과 현재적 문화에 대해 교육할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가정생활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문이 생활과학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가정사업에서도 문화사업은 교육이나 상담사업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가정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생활과학의 차원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 학문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학과목의 신설과 이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전파하는 건강가정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로 나누어 논의한

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노력은 건강가정사업이 생활과학의 실천영역이란 점에서 서로 통합되는 것이지만, 학과목의 개발은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및 전통과 현대생활에 대한 이해, 문제인식과 대안적 해결방안 강구라는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장에 기초한 실제적인 내용구성과 보급에 중점을 둔다.

1) 교육기관에서의 노력- 학과목의 개발

가정생활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과목으로 개설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현재 가정생활문화를 다루는 학과목으로는 건강가정사 자격을 위한 '가족과 문화'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과목은 한국가정생활문화와 동일과목으로 인정된다(여성가족부, 2008). 교과목의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교육될 수 있겠지만 한국가정생활문화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어왔고 가족과 문화의 표준교과안도 가정생활의 변화와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가정생활문화를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건강가정사들이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통생활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전달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므로 문화인류학이나 역사학, 고전문학, 문화콘텐츠, 문화산업학,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콘텐츠학 등 다양한 인접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

한 스토리와 스토리전개방식, 문화사업에의 적용, 사업기획 등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감성과 재미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정문화사업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파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기획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며 대안적인 가정생활문화를 제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음은 가칭 '가정생활문화콘텐츠'의 교육내용으로 제안해 본 시안이다.

2) 사회조직에서의 노력-프로그램 개발

학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이 실제 가정의 생활문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넓게는 사회교육 혹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혹은 작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가정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앞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프로그램 현황에서 지적하였듯이,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중 가장 부진한 문화활동영역으로는 가족의례나 생활예절, 전통생활문화, 공동체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족의례는 상업화, 고급화되는 경향이 가장 심하므로 의례의 본질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가정의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출산, 관혼상제, 기념일 등 가족의 행사와 의례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사회운동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프로그램 중 여가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미술, 음악, 체육 등 가족이 함께 활동한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센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여가를 겸한 문화활동을 하는데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의 여가활동이 아니라 센터의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속적인 가정생활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여가활동이 매개가 되어 가족여가의 기능과 의미를 새길 수 있고 가족여가가 가족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센터가 장기적으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대상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부모-자녀 중심,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을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부 중심의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청소년 혹은 노인들을 참여시키거나 가정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다양한 가정주기가 가족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7〉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교육내용

I. 가정생활문화의 이해와 개발	
1.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의 목적, 영역
2.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3.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II.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기초	
4.	가정생활문화콘텐츠의 기획
5.	가정생활문화콘텐츠의 분석
6.	가정생활문화콘텐츠의 유형
7.	가정생활문화콘텐츠의 내용구성
III. 대안적 가정생활문화콘텐츠	
8.	의식주생활문화
9.	의례생활문화
10.	여가생활문화
11.	공동체생활문화
IV. 가정생활문화콘텐츠의 활용과 미래	
12.	학문적 차원-연구, 교육
13.	사회적 차원-평생교육, 공동체운동
14.	정책적 차원
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가족의 생활문화프로그램을 강조하다보면 가족중심적인 시간만 발전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생활문화가 모여 사회의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의 독특한 가정생활문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세대, 지역, 국가마다 의례나 생활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정생활문화를 접하면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문화활동으로 확산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의 성격상, 동일한 주제라도 개별가정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동시에 공동체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은 각 가정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전체 사회의 문화형성을 지향하면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정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됨에 따라 생활의 간편함은 증가하였으나 가정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가정만이 담당하기 어려워졌다. 가정 기능의 변화 혹은 축소는 가정의 중요성과 의미를 폄하하게 되었고 시장노동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이는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생산을 증가시키고 가정의 완충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가정마다의 독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례없이 빨리 발전해 왔으며 경제위기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 중요시되었으며 전통적인 문화나 정신보다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문화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례생활이나 의식주활동을 사회로 대체하게 만들었으며 완전히 서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생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 가정생활문화의 가치는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부문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정생활문화의 계승과 유지, 발전, 다양화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의 기능 및 문화전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가정생활문화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을 위한 시도적 교육내용을 제안하였으며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가정생활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확대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를 계승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에 맞는 가정생활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다.

둘째로 매일의 반복적인 생활위주의 가정생활에서 탈피하여 가족 공동의 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정생활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로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증가나 세계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가정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차이가 서로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문화가 유지되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도적 연구이므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지만 제안된 콘텐츠나 교육안 등은 건강가정사업이나 관련 교과목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강영자, 박성옥, 손상희, 차성란(1999). **생활문화와 예절**. 서울: 교육과학사.

강중구(2009). 경기 하강에 취약한 우리의 소비구조. **경제정보**. LG경제연구원 2009.3.2.

김성희(2002). 세계화와 가정생활의 방향. **대한가정학회 2002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50-58.

남궁진(2002). 세계화시대의 생활문화. **대한가정학회 2002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1-6.

문숙재, 윤소영, 차경옥, 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산업자원부(2006). 유통산업통계.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의 변화. **서울정책포커스**, 12호, 13-15.

여성가족부(2008). 2008 가족사업안내.

여성부(2006). 건전가족문화정립을 위한 여가활용방안.

윤소영(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실시집단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여가문화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2.

이길표, 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이정우, 김연화, 김병나, 김경아, 강기정(2001).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서울: 양서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a). 2006년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서(미간행).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b).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체인스토어협회(2006). 유통업체연감.  
최석호(2008). 한국인의 삶의 질과 여가문화의 실제.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53-67.  
통계청(2006). 2006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2003-2007. 가계동향조사.  
파이낸셜뉴스. 2009.1.28  
한국노동연구원(2002). 주5일 근무제 도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국민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  
공정책 개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접 수 일 : 2009년 10월 6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22일